

액체로 된 황금 II

“아 기는요?” 하고 물어보니 “아들입니다, 건강합니다.” 하는 소리를 듣고 다시 눈—— 이 감기면서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한참후 정신을 가다듬고 보니 병실침대에 옮기고 있었어요. 그때서야 주사약이 떨어지는 것을 불려 고 하는데 빨간봉지도 같이 매달려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남편에게 물어보니 출산할 때 출혈이 너무 많아서 수혈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7월4일까지 금식하고 5일날 묽은 미음이 나왔어요. 이제부터는 수혈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주사 하나를 뺐습니다.

병실에 온후 과장님이 회진 오시거나 수간호사, 간호사들이 올 때마다 아기에게 젖을 먹여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직 몸도 안 좋아서 수혈까지 하는 사람이, 음식도 못 먹었는데 어떻게 젖이 나오냐며 이상하게 보는거예요 저도 역시 답답해서 물어보는건데 너무 무성의하다고 느꼈어요. 이제 지나서 생각해보니 책에서 본 내용은 자연분만을 했을 때 태어나자마자 먹일수 있다는 거고, 수술시는 금식이나, 마취니 이런것 때문에 3일정도 지나야 된다는 것 같아요.

출산 후 3일째 되니까 젖이 탄탄해지기 시작했어요. 신생아실에 연락했더니 짜지말고 마사지만 해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동생과 같이 내려가서 처음하는 수유라 당황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여 걱정반, 기대반 하면서 수유실에서 기다리는데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와서 건네주었어요. 옆에서 동생이 도와주어서 어떻게 젖꼭지를 입에 물렸는데, 잘 못빠는 거에

요. 한쪽(왼쪽)은 아예 못물고 오른쪽은 손으로 잡아 당기고 아기를 달래가며 겨우 물렸는데 한두번 빨다가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다음에 깨서 울면 불러주겠다고 해서 첫 번째 모유 먹이기는 이렇게 끝내고 아쉽지만 병실로 올라와서 계속 마사지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조금이라도 쉽게 아기가 젖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시간이 나는 대로 고통스러웠지만 참고 동생이 계속 마사지를 해서 3시간쯤 후 다시한번 가서 젖을 먹고는 또 불러준다고 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서 내려가 봤더니 근무교대시간이라 그냥 우유를 먹였다는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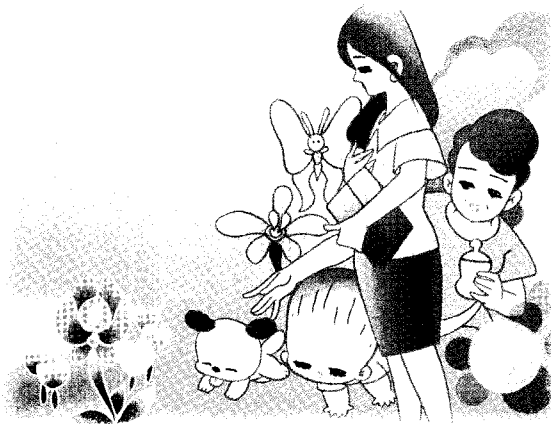
다음날 2번 먹이고는 그 다음날까지 못먹이고 계속 짜서 버렸습니다. 왜냐구요. 야간이라서 안된다. 황달기가 있어서 안된다. 설사기가 있다.

선생님이 지시가 없어서 안된다는 등 정말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1주일후 퇴원하고 집에 와서는 한쪽(왼쪽은 아기가 물지못해서)은 유축기로 짤때만 짜서 먹이고 아기는 한쪽젖만 먹이다가 출산 휴가가 1달이라 출근날자가 다가오자 미리 책에서 본대로 반자동 유축기, 젖병등 필요한 물품은 챙겨 놓았지만 걱정이 많았습니다.

일부러 친정집에서 아기가 젖을 먹을동안을 지내기로 하고 장남 경민이는 일요일, 방학때만 외할머니 집에와서 같이 지내거나 제가 제주시에 갔다오거나 하는 식으로 7개월을 친정어머니가 아기를 돌봐주었는데, 모유수유는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먹이고 출근하기 전에 아기가 깨어나면 먹여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짜서 냉장고에 넣어

두고 손가방에다 끓인 젖병, 유축기, 수건 등을 챙기고 출근했다가 9시반 정도에 사무실에 눈치를 보며 휴게실이나 서고 같은데서 유축기로 짜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점심시간에 보관한 젖을 가지고 25분마다 다니는 완행버스를 타고 집에 가서 직접 먹이고 짠 것은 냉장고에 다시 넣어두면 어머니가 3시 정도에 끓는 물에 우유병을 담갔다가 따뜻해지면 먹이고 퇴근하기 전에 보채면 한 번 정도는 우유를 조금 먹였다가 퇴근하면 직접 젖을 먹이고 하는데 가끔 회사일로 출장을 가거나 할 때는 가방을 챙겨서 갔다가 출장지 화장실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짜서 가져온 적도 여러번이고 젖이 불어서 짜야 하는데 바쁜 일이 있을 때는 젖이 흘러내려 당황한 적도 많았지만 그래도 꼭 내 젖을 먹여서 키워야겠다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저 자신도 대견해 보이고 행복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었던데는 친정어머니의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야 직장 나간다고 가버리면 아기 돌보기도 힘든데(74세) 젖 데워서 먹이랴, 엄마 오기 전에 깨서 우유 달라고 보챌까봐 조금이라도 모유를 더 먹이려고 아기구덕을 계속 흔들며 시계만 쳐다보며 지냈다고 합니다.

저도 사무실에서 점심시간에 나오려고 하다보면 가끔 손님이 찾아와 차대접 등을 하다보면 버스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발만 동동 구르다가 지나가는 차가 태워줄 때도 있고 택시를 타고 갈 때도 있었는데 정거장 부근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이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버스 놓쳐서 전전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아기 밥주러 가는구나, 아기 젖먹이려는 자세가 기특하다”며 바쁜 시간인데도 배달이 지금 없어 한가하다고 하시며 여러 번 태워다 주셨어요.

사무실 소장님 이하 직원들도 젖먹이러 갔다

가 오다보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해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모유수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고마운 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항상 제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98년 8월 2일 출근시부터 다음해 2월 중순까지 먹었는데 동생이 생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젖을 떼야만 했습니다.

젖을 떼 때도 먹일 때 만큼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경민이 학교문제 때문에 제주시로 거처를 옮겼는데 점심시간에 집에 갈 수 없었니까 기저귀로 조여서 젖이 불지 못하도록 하여 참았다

가 그래도 흘러내릴 것 같으면 수도가에서 조마조마해 가며 조금 짜내고 퇴근해서 2번정도 먹이고 아침에 한번정도 먹이고 하다고 안먹일려고 하니깐 아기가 너무 울어서 마음이 아파 한번정도 먹이고 하니깐 친정어머니께서 그러다가 더 힘들어서 못텐다며 막 야단을 치

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매정하게 그럴 수 있을까 아기가 울면 같이 울기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어떡하든 떼기는 해야 하니깐 밤에도 같이 안자고 친정어머니가 데리고 자다가 우유를 먹여서 달래고 3~4일 정도는 잠도 못 주무시고 계속 구덕을 흔들면서 해 가니까 조금씩 보채는 것도 줄어들고 젖도 거의 나오지 않게 되어 젖을 떼었는데 지금 막내 8개월된 미진이는 둘째 경범이처럼 계속 먹이려고 했는데 3년계속 해마다 수술을 해서 몸도 안좋고 연연생 둘이 있으니까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런지 2개월 정도 먹이니깐 젖이 나오지 않아서 못먹었는데 너무나 속상했어요.

이런 행사를 마련해 주신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 감사드리며 저도 주위의 산모들에게 꼭 모유를 먹이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본 난은 우리 협회에서 실시한 엄마젖이 최고! 대국민 홍보작품 수기 부문 새빛상에 입상한 현안호씨의 작품입니다.